

Room 6: Calligraphy

Transcription of the *Lotus Sutra*

N-12 *Hokke-kyo* (Lotus Sutra)

This scroll is from a complete eight-volume transcription of the *Lotus Sutra* on ramie paper that has been dyed yellow. The transcription was made with the aid of faintly ruled lines of ink between the vertical columns of text. Each vertical column contains exactly seventeen characters written in strong, bold brushstrokes, though in a less meticulous hand than the methodical, precise calligraphy that typified the Nara period (710–794). This discrepancy suggests that this transcription might actually be from the Heian period (794–1192).

第6室（书法）

—法隆寺传承的《法华经》—

N-12 法华经

此《法华经》八卷书写在以淡墨画出乌丝界栏的黄麻纸上，遵循一般的写经通例，每行写有17字。字体笔画较粗，运笔有力，八卷全由同一笔者书写完成。与字形端正齐整的奈良时代写经相比，此八卷笔致较为柔和，推测其书写时期有可能已进入平安时代。

제6실 | 서예 | 호류지에 전래된 법화경

N-12 법화경

황마지에 열은 먹으로 패선을 그은 용지에 『법화경』 8권을 필사한 작품으로, 한 행에 17자가 들어갑니다. 글씨가 약간 굵고, 힘있는 필치로 쓰였으며, 8권 모두 한 사람의 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시대의 정돈되고 단정한 사경 작품과 비교했을 때 흘려쓴 글자 등이 보여서 헤이안시대에 걸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6실 | 염직 | 호류지와 쇼소인의 비단

이번에는 호류지에 전해져 온 염직 작품과 함께 쇼소인에 전해져 온 염직품을 소개하며, 아스카시대부터 나라시대에 걸친 염직 기법과 무늬의 변화, 호류지와 쇼소인 비단의 차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류지에 전해져 온 비단>

N-41-1 꽃·새·나비무늬 비단 깔개

비단은 두 가지 색의 씨실을 사용한 위금으로, 두 종류의 풀꽃무늬 사이에 새와 나비를 배치하였습니다.

N-45-1 갈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조각

여러 개의 색실을 조합한 위금입니다. 중국 당시대의 영향을 받아 당화무늬를 나타냈습니다.

N-46-1 갈색 바탕 사자 머리와 봉황무늬 비단 조각

날실을 부분적으로 염색하여 무늬를 짜낸 경금입니다. 위금보다 오래된 기법을 사용한 직물입니다.

N-46-4 황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조각

대형 당화무늬를 짜넣은 위금입니다. 당화무늬는 나라시대 불상 장식에서도 자주 보이는 무늬입니다.

N-46-5-2 짙은 갈색 바탕 짙은 나무무늬 광동비단 조각

광동비단 조각이란 날실을 무늬에 따라 미리 염색한 다음 평직으로 직조하는 잔무늬 비단입니다.

N-46-3-3 적색 바탕 산과 마름모무늬 비단 조각

씨실을 임의로 띄운 부문금입니다. 마름모무늬와 산길무늬 등 기하학적인 문양을 연속하여 나타냈습니다.

N-305 적갈색 바탕 연속 거북등 꽃무늬 비단 조각

연속시킨 거북 등딱지 무늬 안에 꽃무늬를 넣은 경금입니다. 같은 모양의 비단이 쇼소인 보물 중에도 있습니다.

N-306 녹색 바탕 잎이 여섯 장인 꽃과 새무늬 비단 조각

이 작품도 쇼소인에 똑같은 작품이 남아 있으며, 호류지의 작품과 동시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쇼소인의 비단>

I-337-156 청록색 바탕 잎이 여섯 장인 꽃과 새무늬 비단 조각

청록색 바탕에 잎이 여섯 장인 꽃무늬를 엇갈리게 배치하고, 바탕 무늬로 새와 식물무늬를 나타냈습니다.

I-337-160 번죽 드리개 조각

I-337-161 녹색 바탕 꽃과 당초무늬 능직비단 번죽 드리개

757년에 열린 쇼무 천황의 1주기 법회에서 사용된 관정번의 번죽 아랫부분에 장식된 것입니다.

I-337-172 적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쇼소인에 소장된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원래는 배자(소매가 없는 상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I-337-174 자색 바탕 꽃·새·연속구슬·연속칠보무늬 비단 천개 드리개 조각

천개에 드리우는 장식물입니다. 비단의 무늬는 테두리에 연속으로 구슬무늬를 두르고 칠보를 연속시킨 가운데 꽃과 새를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능직비단에는 복잡하게 덩굴이 감긴 큼직한 포도 덩굴무늬가 표현되었습니다.

I-337-180 담홍색 바탕 꽃과 새무늬 비단 번죽 드리개

I-337-181 황록색 바탕 사슴과 구름무늬 비단 번죽 드리개

I-337-194 긴 얼룩과 꽃무늬 비단 번죽 드리개

I-337-195 황록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번죽 드리개

쇼무 천황의 1주기 법회에서 사용된 번의 장식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단이 확인됩니다.

I-337-231 자색 바탕 꽃·새·연속구슬·연속칠보무늬 비단 천개 드리개

I-337-232 연한 갈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천개 드리개

천개의 드리개 장식입니다. I-337-231의 칠보무늬 속에는 새가 표현되어 있어, 헤이안시대 이후 귀족들의 의상에 사용되는 새 띠무늬의 옛날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337-225 싸라기눈 바탕 꽃무늬 비단

불교 의례에서 사용되는 깃발인 번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천 조각입니다. 황록색 바탕에 적색과 황색으로 싸라기눈 무늬(작은 정사각형을 반복적으로 배치한 무늬)를 나타내고, 기하학적인 당화무늬를 곳곳에 넣었습니다.